

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5호

2-3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결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쑤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뒷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기형도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중에서 '우리 동네 목사님'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CONTENTS

2026년 2-3월호

04 이달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김주용 위임목사

06 특집-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봄(Spring & Behold)**
십자가 곁에서 피어나는 이야기

13 2026년 YBS 봄학기 개강

연못골 광장

14 1018예수사랑 **용기와 희망을 전해요** 장호영 성도(초등부 6학년)
15 2030새벽이슬 **저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허지혜 성도(HI청년부)
16 살며생각하며 **두 소설 속의 상반된 아버지와 나** 이호진 장로(강서구역)
17 3, 4월 행사 안내

궁금해요 Q&A

18 새학기, 아이의 적응을 돕는 엄마의 지혜 **교문 앞에서 시작되는 용기** 이명진 공로권사(혜화구역, 한국기독교코칭학회장)

청년광장

20 HI청년부 **봄과 함께 다시 새로워진 HI청년들**
22 HI청년들 이야기(19) **2007년생 삐약이들의 질주, '풀악셀'**

주님과 함께하는 삶

24 믿음의 스포츠인(2) **크라이튼 커쇼 선수의 우선 순위** 오한빛 목사
26 소그룹 탐방(7) **연동교회의 '수상한 가수들', 소그룹 '소리터'**
28 칭찬합니다(19) **'최경희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29연동북하우스(24)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선교

30 선교지에서 온 편지 **부르키나파소에 심은 복음의 씨앗** 박소현 선교사
32 중국어예배반 **전도의 사명을 새긴 특강 진행**
33 필리핀예배공동체 **바다 건너 전해진 사랑, WIN 러브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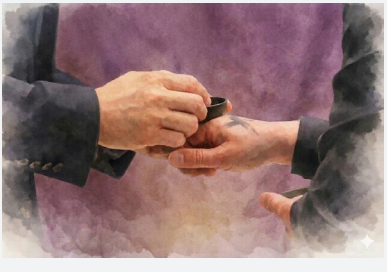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34 청소년주일학교
42 겨울의 눈도 녹인 중고등부의 뜨거운 겨울수련회
43 연동숲속아기학교 9기 개강

연못골 사람들

44 왓두유뽀리빙(7) **Hello. Pastor Abel. Kumusta? 아벨 목사와 함께**
46 HI연동청년, 창업/직업 도전기(22) **한국어 강사 강혜원 청년**
48 새신자 어게인(25) **"연동교회는 오랜 검증 끝에 찾은 안식처입니다" 김승희 성도(아일구역)**
50 연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의 자리**
53 사순절 촉각십자가 전시회 안내
54 지체들
69 연동복지재단
70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71 연동컬러링

제목: 사순절 첫 날, 재의 의식
재료: 사진에 AI(Gemini + ChatGPT)
제작일: 2026년 3월 18일(수)
그림 내용: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
재의 수요일에 드린 '재의 의식' 사진에 AI를 활용해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제작자: 연못골 편집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자기 진단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번째는 외로울 때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곧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일 것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일'을 하려고 '일'을 찾아 다니며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일중독(workaholic)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본래는 '일'이라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외롭게 혼자 남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 하게 되는 '그것'으로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면 안에 있는 우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진단을 해 보십시오. '나는 외로울 때 무엇을 찾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때마다 찾게 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우상'이 아닌지를 깊이 고심해 보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 6:21에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곳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고,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쓰며, 몸이 아플 때는 자기 자신에게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물질이 가장 많이 흘러가는 곳을 살펴보면 거꾸로 나를 옥죄고 있는 우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곳에 마음껏 돈을 쏟아내 보자", "먹을 때는 돈을 아끼지 말자", "옷 살 때는 아까워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우상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인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반응을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며 원망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간절히 기도했던 자기 자신을 더 큰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앞에 질문들을 깊



김주용 위임목사

이 숙의하면서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는 자들은 봉사하고 헌금을 할 때마다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일조를 하지 말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는 의로운 목사이고 봉사를 줄이고 사역은 신앙과 상관없다고 말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돈과 물질을 사용할 때는 과감하고 통 크게 행동하지만,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는 수만 가지의 조건과 이유를 갖다 붙이고, 교회를 위해 일을 하는 것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돈이 우상이고 공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에 대한 견해와 판단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중독되어 정치인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도 조금의 심리적 자극과 약간의 도덕적 지적을 잘 버무려서 세련된 전달의 방법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는 실제 복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예배 중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으로 인해 설교나 예배 중 인간의 감정이 동요되어 본연의 말씀 그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감정으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칼빈은 예배 때 찬양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예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만큼 그리스도인은 보수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수는 오른쪽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1-2)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을 위해 참된 보수, 곧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다시, 봄(Spring & Behold)

십자가 곁에서 피어나는 이야기



〈차례〉

여는 글/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날에

1. 그 곁에 있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구레네 시몬, 가룟 유다

2. 나의 부활절-- 성도들 이야기

3. 부활절 Q&A-- 몰랐던 이야기들

닫는 글/ 부활을 소망하며

기획 및 취재, 기사: 박윤신 기자, 박현미 편집장

[여는 글]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날에

창 밖을 보면 아직 차갑습니다.
나무들은 겨우내 가지만 남긴 채 서 있고, 땅은 아직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봄이 온다는 것을.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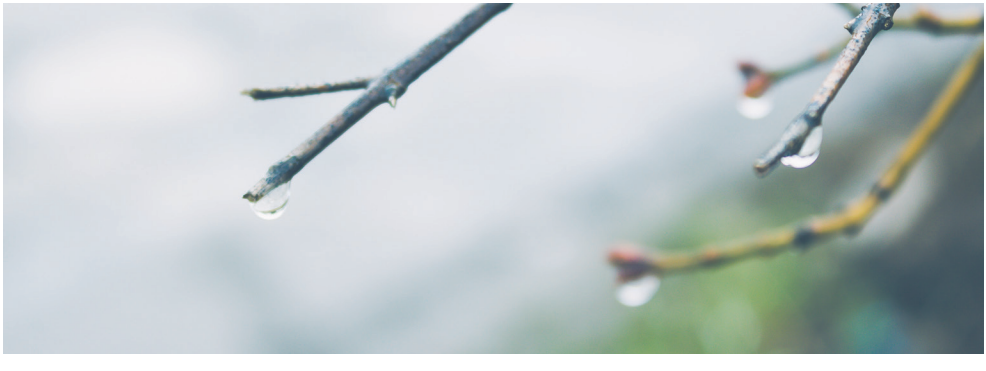
사순절(四旬節)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이어지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던 것처럼,
이 시간은 자기 성찰과 회개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이토록 고통 받으셔야 했는지, 왜 구원의 방식이 하필 죽음이어야 했는지,
이 질문들은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호 '연못골'은 그 질문들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우리 교회는 '탄소금식 발자국'과 함께 걷습니다.
삶으로 탄소를 줄이고 행동으로 사랑을 채우는 이 여정은
사순절의 절제와 회개를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넓혀가는 실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11:25)

봄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낸 사람이 봄을 깊이, 기쁘게 누립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런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그 곁에 있던 사람들

그날 십자가와 빈 무덤, 그 옆에 있었던 네 사람의 이야기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마27:55-56, 요20:1-18)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흩어진 그 밤에도 나는 멀찍이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숨을 보았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 어두울 때,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분은 살아서 거기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넘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자라서, 막달라 출신이라서 아무도 내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보았으니까, 나는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부활 복음을 전한 첫 증거자입니다.



세 번 부인하고 회복된 '베드로' (눅22:54-62, 요21:15-19)

새벽 닭 울음소리는 평생 내 귀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던 그 밤, 나는 도망쳤습니다.

불 곁에 앉아 있을 때 세 번 물음을 받았고, 세 번 다 나는 상관없다고 거칠게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고백이 무너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 무기력하게 그물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변에 계셨습니다. 생선을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히 세 번.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내 배신을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부름 받음. 그것이 부활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막15:21, 눅23:26)



나는 그날 예루살렘에 볼일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창끝이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진 채 비틀거리는 사내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쓸려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비명에 그분이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짙은 슬픔 속 평온한 눈빛. 골고다까지 가는 그 짧은 길이 내 평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무슨 신앙이냐고. 어쩌면 모든 은혜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붙잡혀, 어떤 무게를 짊어지게 되는 것. 그 무게 안에서 어느새 내 인생이 바뀌어 있는 것.

마가복음에 기록된 알렉산더와 루포. 초대교회의 동역자가 된 내 아들들이, 그날 내가 걸었던 그 길의 열매입니다.



가장 슬픈 이름 '가롯 유다' (마26:14-16, 27:3-5, 행1:18)

나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3년을 함께 먹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했고, 내 방식으로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언제쯤 그분이 칼을 드실까, 언제쯤 로마를 뒤엎으실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도 어쩌면 그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막다른 곳으로 몰아붙이면 그분이 일어나실 거라고.

은 삼십.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내 안에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한 채 끌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팔아넘긴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은 삼십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더 큰 죄는 따로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나의 진짜 죄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후회를 따라오는 건 죽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고, 유다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고,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그 하나였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순절은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2. 나의 부활절

성도들 이야기

♥ **윤기자 사모(혜화구역)**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5:28-29)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순절 40일을 예수님을 따라 여행하며 부활절의 은혜를 앞서 누리고 있다. 그분의 손을 꼬옥 잡고 발을 맞추며, 숨결·표정·몸짓·언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온 마음으로 집중한다. 하하 호호 히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논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의 온기와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전이되길 소망한다. 믿음은 삶이고 삶은 믿음이다. 그분을 알면 감히 오만할 수 없다. 내 모습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악인의 부활은 심판이요 선인의 부활은 생명이라 하신다. 두려운 말씀이다. 악인의 모습이 내 안에도 꿈틀거린다. 부디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사투를 벌인다. 죽음은 삶이고 삶은 죽음과 함께 하는 동지이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온기·기쁨·사랑·온유가 나의 버림·깨어짐·눈물·죽음의 자리 속에 채워짐이다.

♥ **최수인(유년부 2학년)** 부활절을 생각하면 달걀, 예수님, 이스터버니가 생각이 납니다. 토끼 가방에 엄마가 커다란 이스터버니 초콜릿을 넣어주셨어요.

♥ **임채준(유년부 3학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으니까, 놀랍고 신기하고 좋았을 거예요.

♥ **김예건 (초등부 6학년)** 유치원 때 선생님이 부활절이라고 삶은 달걀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맛있게 먹었고, 하나는 병아리로 키워보려고 소중히 남겨 두었는데 씽크빅을 하는 사이 형이 그 달걀을 먹어버려서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부활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생각합니다.

♥ **정이은(중등부 3학년)** 부활절하면 달걀이 생각납니다. 다양한 삶은 계란을 받았어요. 달걀은 곧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고서율(고등부 1학년)** 사순절 릴레이 성경읽기 녹음을 했었는데 자꾸 틀려서 반복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이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 **윤재윤(고등부 3학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다같이 계란을 포장했던 기억이 나고 예수님이 찢기고 못 박히신 상처와 구멍을 보이시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말씀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3. 부활절 Q & A

몰랐던 이야기들--의외의 질문 다섯 가지

Q 부활절은 왜 매년 날짜가 달라지나요?

A. 부활절은 춘분(3월 21일경) 이후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로 정해집니다. 태양력과 달력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했습니다.

Q 사순절은 왜 하필 40일인가요?

A. 성경에서 '40'은 특별한 준비와 시험의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모세의 시내산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금식 40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40일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 부활을 맞이하기 전 자신을 돌아보는 준비 기간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Q 부활절 달걀의 유래는 성경에서 비롯된 건가요?

A.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달걀은 초대교회 이전부터 봄과 새 생명의 상징으로 여러 문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연상시킨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사순절 동안 달걀을 먹지 않다가 부활주일에 나눠 먹는 전통도 생겨났습니다.

Q 예수님은 왜 봄에 부활하셨나요?

A.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유월절 전후에 일어났고,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봄에 해당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던 땅이 봄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은 창조 질서의 언어로 '새 생명'을 말합니다. 자연이 해마다 봄을 통해 되풀이하던 것이 역사 안에서 단 한 번 사실로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Q 사순절엔 왜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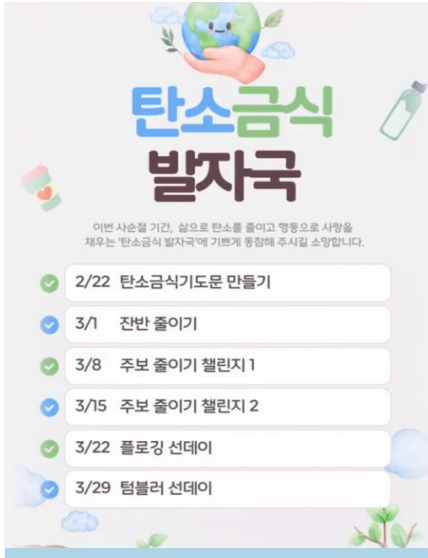
A. 많은 교회 전통에서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 전야까지 '할렐루야'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 동안 잠시 묻어두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첫 예배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 한 마디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그 큰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닫는 글]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아직 빈 무덤 앞에 서지 못한 우리에게 사순절의
기다림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레네 시몬처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참여한 십자가의 길을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돌아오는 길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그 새벽을,
우리가 새로이 살아서 맞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동안 탄소를 줄이고 사랑을 채우는 탄소금식 발자국에 동참합니다..

함께 나누는 묵상 질문

Q1. 네 명의 인물(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구레네 시몬, 가룟 유다) 중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공감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내가 경험한 '부활'의 순간이 있다면 —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된 경험 — 어떤 것이었나요?
Q3. 부활주일,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덤 앞에 서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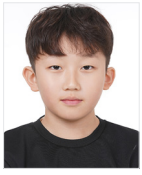
사순절의 40일 동안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behold).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spring),
이제 그 무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모두 빈 무덤 앞에서
"할렐루야!"
기쁘게 주님을 만납시다!

3월 10일 개강 2026년 YBS 봄학기 개강

과 목	**성경 낭독 및 암송 (온라인 Zoom)**
강 사	오한빛 목사
시 간	매주 화·수·목, 오전 6시
내 용	데바레카 성경통독 (말씀 낭독 및 핵심 구절 암송)
목 적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고(낭독) 마음에 새김(암송)으로써 성도의 '영적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 상	말씀을 사모하는 전교인 누구나
과 목	**평신도 전도폭발 훈련 (전도의 사명찾기)**
강 사	이건희 목사
시 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내 용	평신도 전도폭발 훈련 1단계 코스 (JUST EE)
목 적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한다.
대 상	연동교회 성도
과 목	**데바레카 주해반 I (모세오경)**
강 사	김환 목사
시 간	매주 토요일 온라인(유튜브)업로드
내 용	모세오경(데바레카 성경통독표 상 1-2월) 의 전체 흐름을 요약하고, 통독 시 마주하는 어려운 구간의 해설과 실전 팁을 제공하는 온라인 가이드 수업
목 적	모세오경의 핵심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여 '데바레카 성경통독'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 상	데바레카 성경통독 참여자, 모든 성도
과 목	**데바레카 주해반 II (여호수아~욥기)**
강 사	이진우 목사
시 간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내 용	여호수아부터 욥기까지의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성서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본문을 주해한다.
목 적	신앙의 사계절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며 우리 인생의 굴곡을 해석하는 눈을 갖게 한다.
대 상	데바레카 성경통독 참여자 및 모든 성도
과 목	**결혼예비학교**
강 사	위임목사, 계대윤 목사 외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내 용	8주간 다양한 주제로 전문강사들의 강연과 직접 참여를 통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가정 계획을 준비할수 있도록 한다.
목 적	결혼예비학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하며, 현실적인 강의내용으로 실제 결혼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실수를 줄일수 있도록 한다.
대 상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및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
과 목	**데바레카 묵독반(프로베짜이) - ZOOM 미팅 활용**
강 사	박주안 목사
시 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내 용	프로페짜이(Propheze i)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전통에서 유래한 성경 연구 모임으로, 단순히 본문을 읽는 것을 넘어 원어에 대한 탐구를 하며 묵상한다.
목 적	설교와 삶의 적용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적 성경 연구' 방식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눈다.
대 상	HI - 청년공동체, 5교구 씽씽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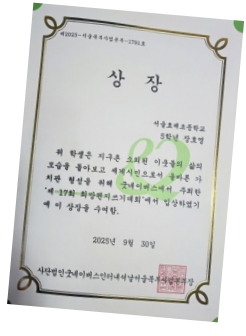
용기와 희망을 전해요



장호영 성도
(초등부 6학년)

제가 다니는 효제초등학교에서는 매년 굿네이버스에서 개최하는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전교생이 참여합니다. 학교에서 '희망편지쓰기'는 편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편지쓰기에 강제성은 없었지만, 저희 반은 국어 숙제로 내야 돼서 반강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쓰기 시작한 편지였지만 저는 점점 주인공 줄리엣을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줄리엣은 건강하게 자라기,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기, 멋진 선생님이 되기라는 3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평범한 소원으로 느껴졌지만, 간절한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줄리엣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회사 일로 바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줄리엣에게 편지를 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제 모습,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마음이 괜찮아졌던 제 모습이 겹쳐보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극복했고, 줄리엣도 극복할 거라고 믿는 긍정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줄리엣을 응원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과 줄리엣도 희망과 변화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 장

수상자 소속 학교
5학년 장호영

위 학생은 지구촌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계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굿네이버스에서 주최한 '제17회 희망편지쓰기대회'에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5년 9월 30일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하내성남의정부지부장

줄리엣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썼던 편지 덕분에, 저는 2025년 제17회 '희망편지쓰기' 대회에서 종로구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한 대회였지만 의미있는 상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를 대표할 수 있었고, 교장 선생님께 단독으로 상장을 받아 뿌듯했습니다. '희망편지쓰기'라는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작은 편지가 힘이 되고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허지혜 성도
(HI청년부)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엔 인생의 대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남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를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주기도 했고요.
항상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혜진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연동교회 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시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냥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가게 됐어요.

수련회 첫날부터 '오길 잘 했다'고 느꼈던 이유는,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순수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배시간에 모두가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살면서 소원은 빌어본 적 있어도 기도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처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라는 걸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독교 친구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도구나… 하나님이 이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나를 이 수련회로 보내셨구나.'

그 후 하나님을 만난 지 5개월 만에 세례도 받았고, 이번에는 청년부 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누가 권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신앙을 고백하고 내 발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 간 수련회였기 때문에 더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제야 깨달아 죄송하다는 마음과 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사해서 기도 시간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는 제 인생의 많은 가치관을 바꿔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동교회 언니, 오빠, 친구들, 그리고 혜진이 덕분에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하나님의 사랑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소설 속의 상반된 아버지와 나



이호진 장로
(강서구역)

나는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채식주의자>를 읽으며 이 소설들의 줄거리나 의미(주제)보다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다른 두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1880년에 출판된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소설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고전이다. 이 소설에는 카리마조프 가문의 아버지인 표도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비록 소설이지만 세상에 이런 상식 밖의 아버지도 있구나 하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 충격적인 이유는 그는 자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로서 겉으로만 관심없는 척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자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아버지이다. 심지어는 큰아들의 애인을 빼앗아 자기 애인으로 삼으려는 모습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아버지이다.

반면 이와 대조적인 아버지는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아버지이다. 이 소설 속의 아버지는 지극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강요하고 인격마저 무시하는 아버지이다. 두 소설 모두 아버지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거나 아버지를 증오했던 자녀들은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고 인내하며 견딘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의 인격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현실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멋있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울타리이자 친구가 되어야 한다. 어렵사리 물질적 지원은 겨우 했지만, 그 외의 역할에서는 실패했다. 핑계지만 기대와 욕심이 앞섰고 여느 아버지들처럼 바깥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았다.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터. 자녀 키우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보았다. 특히 큰딸의 경우는 아버지로서의 경험도 없었기에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나뿐만 아니라 현실의 많은 아버지들 또한 멋지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엄마와 자녀의 간극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간극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너도 결혼해서 자녀 키우면서 속을 썩어 봐야 내 마음을 알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자녀가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성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야 할 자녀들을 보며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 모습이야말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3, 4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3	1일(주일)	3·1절기념예배(오후 3시, 본당), 제직회(오후 4시, 본당)
	3일(화)	출근길 직장인 섬김 및 새학기 응원 전도활동(국내선교부, 청소년주일학교), 봄정기심방 시작
	4일(수)	실버아카데미 개강(오전 10시 30분, 베들레헴예배실), 구역장성경공부 개강(오후 5시 30분, 베들레헴예배실)
	5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7일(토)	오픈강의(오전 7시 10분, 베들레헴예배실, 강사: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8일(주일)	남선교회 주일, 남선교회 헌신예배(오후예배시, 본당)
	10일(화)	YBS봄학기 개강(각 강좌별)
	14일(토)	러브릿지_ON(溫)_권사회
	21일(토)	음악찬양부 수련회(오전 10시, 본당), 9기 연동숲속아기학교 입학예배(매주 토, 5주간 진행)
	22일(주일)	음악찬양부 헌신예배(오후예배시, 본당)
	28일(토)	러브릿지_ON(溫)_청년
	29일(주일)	종려주일
	30일(월) - 4/4(토)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4	4일(토)	한식합동추모예배(오전 11시, 연동동산)
	5일(주일)	부활주일, 부활절축하음악예배(오후예배시, 본당)
	7일(화) - 10일(금)	신협주관 선교여행(일본)
	9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11일(토)	러브릿지_ON(溫)_장년
	12일(주일)	자매교회순회예배(일신교회)
	19일(주일)	찬양집회1(트리니티)
	23일(목)-24일(금)	210회 서울노회(신일교회)
	25일(토)	러브릿지_ON(溫)_청년
	26일(주일)	유년부순회예배(학부모간담회), 당회(오후 2시 30분, 위즈덤하우스)
	29일(수)	새참콘서트
5	3일(주일)	어린이주일(온세대예배 3부), 제직회(오후 2시 30분, 본당)
	8일(금)- 9일(토)	중보기도학교
	9일(토)	러브릿지_ON(溫)_장년
	10(주일)	어버이주일(경로잔치)

교문 앞에서 시작되는 용기



"잘 지낼까?" 새 학기 아침마다 엄마의 마음은 아이보다 먼저 교실 안으로 달려갑니다. 그 걱정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새 학기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3월 새 학기면 엄마들의 불안도 커지는데,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3월이면 새 가방을 멘 아이들이 교실을 향해 걸어가면 엄마들은 한동안 담장 너머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친구들과 잘 지낼까?" "선생님 말은 잘 알아들을까?" 설렘과 걱정이 반반인,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이는 생각보다 새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부모의 불안이 지나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지나쳐 아이의 마음에 불안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괴롭히면 바로 말해", "그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어머니의 의도는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학교가 걱정해야 할 곳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기면, 갔다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해줘~."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연필을 빌려줬어." "내 짝 이름이 민준이야." 그 작은 이야기들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가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가 새 학기 첫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어머니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천천히 생길 수도 있어. 엄마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그 말에 아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놀 친구가 생겼어." 아이에게 그 며칠은 관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해



이명진 공로권사
(혜화구역, 한국기독교코칭학회장)

준 것은 엄마의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너는 잘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눈빛과 태도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읽어냅니다. 또한 "오늘 누구랑 이야기했니?"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니?"처럼 관계에 대한 따뜻한 질문을 건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피해야 것들도 알려주세요.
첫째, 지나친 걱정을 아이 앞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너 싫어하면 어떡해?" 같은 말은 아이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하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작은 갈등은 대인관계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너무 빨리 개입하면 아이가 스스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잘 하는데, 너는 왜?"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적응의 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나를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엄마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를 기다려 줄 때, 아이는 자신의 속도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를 빨리 사귀고, 어떤 아이는 조금 천천히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이 계절이 부모에게 주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새 학기는 아이들에게만 도전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소중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마음으로는 깊이 응원하면서도, 아이의 손을 조금씩 놓아 주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 해낼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 믿음이 아이의 마음속에 살며시 용기를 불어넣으므로, 아이는 새로운 교실의 문을 활기차게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교하는 아이에게 건네주면 좋은 한 문장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기면, 이따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해줘~"

봄과 함께 다시 새로워진 HI청년들

| 신구 임원 리트릿





1월 25일(금), 가나의 집 아가페홀에서 신구 임원들이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한 임원들과 올 한 해를 이끌어갈 임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





1월 24일(토), 2월 28일(토), 창신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생필품 키트를 나눠드리는 러브릿지온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전달해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함 가운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새내기 환영회





올해 스무 살이 되어 하이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을 맞이하기 위해 1월 25일(일) 가나의 집 조이홀에서 새내기 환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원단, 교역자와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식사 교제를 통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내기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금요 기도회





2월 6일(금), 2월 13일(금)에 가나의 집 아가페홀에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기도의 열기가 지속되길 함께 중보해주세요.

| 영화 〈부흥〉 상영회





2월 7일(토), 2월 14일(토)에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부흥〉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관람 후에는 제작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멈추지 않는 부흥의 역사를 마음 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겨울수련회





2월 20일(금)부터 2월 22일(일)까지 2박 3일간 강화수양관에서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9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부르심을 알아가고, 이를 힘써 지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7년생 삐약이들의 질주, '풀악셀'



'풀악셀'은 두 명의 리더와 새내기들로 구성된 셀로,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I청년공동체에서는 '새내기 환영회'와 '새내기밥약쿠폰' 등으로 그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 남다은 기자

♥ 새내기를 이끄는 리더들의 한마디!



성해누리 리더: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두려움, 불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윤주원 리더: 리더를 맡기게 될 줄, 특히 새내기 셀리더를 맡게 될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귀한 영혼들의 리더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새내기들에게 묻는다! 나에게 HI청년공동체란?

마음껏 실수해도 괜찮고, 배워나갈 수 있는 곳 -김서형-

삶의 위로, 안식처 -김우진, 안영찬-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 -고서현, 홍진희, 최재원-

세상의 공동체랑 달리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김태원-

가족 - 현채원 -

환영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주희, 육기돈, 허지혜-

♥ 기도해주세요



고서현: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길.



김연후: 올해 안에 예람찬양팀 들어가기



김우진: 새내기셀 친구들 모두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올해도 힘차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김태원: 풀악셀이 더욱 하나되어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더라도 계속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안영찬: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육기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되기



이주희: 주를 더욱 알고 싶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내가 되길.



최재원: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기,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면서 기도 많이 하며 살아가기



허지혜: 내 인생에 깊이 박혀있는 욕심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채원: 인내할 수 있는 힘 기르기



홍진희: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김서형: 우리 가족과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길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박수연, 박혜진, 최태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크라이튼 커쇼 선수의 우선 순위



만물이 소생하는 3, 4월이면 겨우내 웅크렸던 스포츠의 열기도 기지개를 켭니다. 특히 '야구의 계절'이 돌아오면 팬들의 가슴은 다시금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호에서 이영표 선수를 통해 '그라운드 위 성실함의 영성'을 나누었다면, 이번 호에서는 클레이튼 커쇼(Clayton Kershaw) 선수의 삶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떠나 전설이 되고, 최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커쇼라는 이름은 유독 친근합니다. 2008년,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로 복귀했을 때의 일화 때문입니다. 당시 팀 내 최고참 베테랑이었던 박찬호 선수가 어려워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갓 데뷔한 스무 살의 루키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함께 먹어도 되나요?" 낯선 동양인 선배의 외로움까지 살필 줄 알았던 그 따뜻한 청년은, 훗날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로 성장합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사이영상 3회 수상, 리그 MVP, 트리플 크라운(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1위) 달성, 그리고 꿈에 그리던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통산 평균 자책점 2.54(라이브볼 시대 100경기 이상 선발투수 기준 최저)라는 숫자는 그가 얼마나 압도적인 투수였는지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완벽했고, 타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한빛 목사

하지만 그를 '지구상 최고의 투수'라 부를 때, 정작 본인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야구선수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직업이 야구선수일 뿐입니다." 그에게 야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귀한 도구였습니다. 커쇼는 메이저리그의 살인적인 일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으레 화려한 휴양지로 떠나는 다른 스타들과 달리, 그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잠비아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조차 잠비아 선교지로 떠났던 그는 '커쇼의 도전(Kershaw's Challenge)'이라는 재단을 설립해 고아원과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삼진을 잡을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하며 자신의 성공을 이웃을 위한 섬김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팬들은 그의 낙차 큰 커브에 환호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화려한 기록 뒤에 숨겨진 그의 '거룩한 무릎'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글러브를 벗은 그의 삶이 남긴 울림은, 여전히 강력한 직구처럼 우리의 가슴에 꽂힙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운드 위에 서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때로는 9회 말 만루 위기처럼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혹은 당장의 성과가 급해서 신앙을 잠시 불펜에 대기시켜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커쇼는 최고의 전성기, 가장 바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마운드를 떠난 그의 삶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가 세상의 명예의 전당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커쇼에게 잠비아와 마운드가 선교지였듯,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2026년의 봄, 세상의 성공을 좇느라 잠시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삶이라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연동의 가족들이 던져야 할 통쾌한 '믿음의 스트라이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따뜻한 위로가,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동교회의 '수상한 가수들', 소그룹 ‘소리터’



2025년 부활주일 교회 마당 버스킹

“음치라고요? 소리 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음치라서 노래를 못 해요.” 혹시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소그룹 ‘소리터’에서는 그 말이 금세 웃음으로 바뀝니다. “음치라고요? 아닙니다. 소리 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유쾌한 한 마디가 ‘소리터’의 첫 인사입니다.

‘소리터’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소리를 내며 웃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면 어색했던 얼굴이 어느새 환한 미소로 바뀌고, 서로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 오는 분도, 음정이 흔들리는 분도, 누구든 부담 없이 환영 받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익숙지 않은 교인들을 이어주는 기적

‘소리터’는 2025년 1월, 한정호 집사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 식사 자리에서도 혼자 어색하게 밥 먹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떠오른 것이 바로 노래였습니다. 평소에도 늘 기타와 노래와 함께하기에 누구에게나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생기고, 이야기가 이어지면 마음도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리터’는 노래를 매개로 교회 생활이 익숙지 않던 교인, 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던 교인, 노후가 무기력하던 교인들의 마음을 교회와 이어 주며 은혜와 활력을 덤으로 주는 기적 같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7시, 소년, 소녀로 변신되는 시간

매주 토요일, 예비일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소리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공기가 채 풀리기도 전, 교회 안에 활기찬 노랫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 오전 7:00 - 8:15 노래교실(발성부터 합창까지 / 지도: 한정호 집사)
- 오전 8:15 - 9:00 기타교실(지도: 허선미 권사), 일대일 발성 레슨(지도: 한정호 집사)

현재 멤버는 50대부터 80대까지 총 10명. 그중 84세 회원 두 분은 '소리터'의 자랑입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은 열정으로 누구보다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타까지 배우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실력보다 함께 웃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입 벌려 노래할 때만큼은 싱그러운 소년, 소녀가 됩니다.

청계천이 들썩? 범인은 바로 여기, 이분들!

'소리터'의 활동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이들이 펼친 활동은 눈부십니다.

- 교회 버스킹 3회 — 마당이 찬양 콘서트장으로!
- 신금호교회·여수중앙교회·신장위교회 방문 — 찬양으로 전하는 하나님 사랑
- 청계천 삼일교 버스킹 3회 — 도심 한복판에 울려 퍼진 노래

기타와 노래가 어우러진 서울 도심의 버스킹은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도심과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고, 청계천 삼일교 버스킹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래로 마음을 두드리는 작은 선교 - 그것이 '소리터'의 꿈입니다.

어떤 회원은 노래 하다가 친구를 얻었고, 어떤 회원은 노래 배우러 왔다가 새벽기도회 기도자가 되었고, 어떤 회원은 함께 노래하며 진정한 교인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배우려다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배우게 된 이들이 궁금하다면, '소리터'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권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장소: 부용찬양대실(교육관 312호)
▶회비: 월 1만원
▶가입 및 문의 : 총무 조진숙 집사
(010-3170-4168)

〈잠깐 인터뷰〉 조명숙 집사(중구구역)



'소리터'에 오신 후 많은 변화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는 권사님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랐어요.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던 제가 남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기도와 찬양, 교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리터를 어떤 분께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저처럼 소심하고 노래에 자신 없는 초신자 분들께 꼭 권하고 싶어요. 노래뿐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니 교회가 낯선 분들에게는 교회생활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희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보낸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여한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지난해를 끝으로 정든 주일학교를 떠나 올해부터 목양위원회 서기와 사회봉사팀 팀원으로 섬기고 있는 최경희 권사님께서는 퇴임하실 때 25년 근속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25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마땅히 ‘칭찬합니다’의 주인공이라 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가정을 만나 1990년 연동교회에서 결혼하며 출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연히 주일학교에 '놀러 오라'는 친척분의 권유로 남편과 함께 찾아갔다가 어린이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유치부, 영아부 부감과 부장을 거쳐 작년 유년부 부장까지,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역 중 찾아온 시어머님의 암 투병과 시아버님의 뇌경색으로 큰 시련에 잠시 사역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깊이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일어설 명분이 되었고, 다시 기쁘게 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주일학교 근속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지식이나 체력이었다면 진작 한계에 부딪혔을 것인데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광야의 만나'처럼 늘 함께해주신 전도사님들과 동료 교사들이 큰 힘이 되었답니다. 매주 교사 경건회를 통해 드리는 기도와 예배 후 나누던 따뜻한 차 한 잔과 격려가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연을 여쭤보니 유년부 시절, 봄나들이에 함께 왔던 한 아이의 친구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통해 어머니가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믿지 않았던 아버지는 아이를 통해 연동교회에 등록하고 온 가족이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가 찬양율동팀으로 서울시대회에서 상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꼈다고 하시네요.

퇴임하신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주일이 훨씬 여유로워져서 가족과 함께 나란히 앉아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며, 삶의 느긋함과 여유를 배워가고 있으시답니다.

권사님께서는 늘 1·2부 예배 후 주일학교로 달려가던 분주함이 사라져 마음 한편에 심란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일학교를 기쁘게 ‘졸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아이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부장님을 퇴임하신 현재도 분당구역장, 2여전도회 사회부 부장, 여전도회찬양단으로 여전히 많은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권사님의 소망은 주어진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삶의 매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랜 사역 힘듦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그리고 여전히 신앙의 아름다움을 밝히시는 최경희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 이경아 기자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 박홍규 옮김 / 들판 / 2016년



신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7장 20-21절)

위의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신의 나라가 언제 올 것 같은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 답한 말이다.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 2016년에야 국내 최초의 완역판이 출판되었다.

톨스토이의 종교론(기독교론)에 대한 3부작인 〈참회록〉, 〈신앙론〉 과 더불어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를 손꼽을 수 있음에도 이 책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후기 사상이 급진적인 비폭력·무저항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급진성은 여전히 현재도 많은 이들을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실은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실천했던 삶의 자세다. 참고로 러시아정교회는 이 책으로 인해 톨스토이를 파문했으며 마하트마 간디는 이 책을 읽고 비폭력운동을 시작했다. 톨스토이 자신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문호들 중에서 아버지가 빈민병원의 의사였고 평민인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중독과 간질로 고통받았다. 반면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임에도 스스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땀 흘려 노동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와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에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체로서의 주관적 확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언이지만, '네 안에 있다'는 그런 주관적 확신을 객관적 수준까지 끌어올려 타인(객체)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반추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한국 교회의 현재를 반추하게 하는 역할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톨스토이는 병역 거부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도 반대했고 나아가 사형제도에도 동일한 입장이었다. / 진상협 기자

부르키나파소에 심은 복음의 씨앗 - 박소현 선교사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전해진 선교 소식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학교와 교회, 성경캠프, 그리고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 이야기입니다. 지난 우기 동안 집중호우로 학교가 큰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오면 다음 날 학교가 물에 잠겨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고, 주방이 침수되어 급식이 어려운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셔서 학교 담장의 절반 가량을 먼저 세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전보다 피해를 줄이며 아이들이 계속 수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담장 공사가 필요하지만, 그 절반의 공사만으로도 아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왔고, 무슬림 가정의 등록도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기독교 학교의 교육과 환경을 신뢰해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9월에는 학생 50명과 함께 2박 3일 성경캠프를 열었습니다. 8년 만에 학교에 전기가 들어와 저녁에도 예배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찬양과 기도, 말씀, 성경 연극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후원 덕분에 좋은 식사도 제공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읽으며 마음에 남는 것은, 부르키나파소의 현실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보다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시고, 아이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며, 한 가정을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잠기는 학교에도, 낯선 햄버거를 받아드는 아이들의 웃음에도, 예배 5주년을 맞은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연동교회 공동체도 이 소식을 함께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테러가 종식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도록, 학교와 교회를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새로운 교회 터와 난민 사역이 주님의 때에 열리도록, 그리고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작은 기도가 모여 먼 땅의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르키나파소 나라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르키나파소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으로, 수도는 와가두구(Ouagadougou)이고,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 지역에 속하며, 바다가 없는 대신 말리·니제르·베냉·토고·가나·코트디부아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는 2025년 추정 약 2,400만 명 수준으로 소개되고, 미국 국무부는 현재도 부르키나파소 전역에 대해 "여행 금지(Level 4)"를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축의 비중이 크고, 최근에는 금(gold)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르키나파소의 GDP 성장률은 4.8%였고, 1인당 GDP는 약 982달러로 집계된다.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농업과 자원 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슬람, 기독교, 전통신앙이 함께 존재하며, 일상에서는 프랑스어와 여러 토착 언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선교와 교육 사역이 중요한 이유도, 다양한 민족·언어·종교 배경 속에서 학교와 교회가 지역사회 접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도의 사명을 새긴 특강 진행



3월 한 달 동안 중국어예배반에서는 예배 후 전도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건희 목사님을 모시고 총 4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특강은,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현재 2주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주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졌으며, 동시에 전도의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차에서는 전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먼저 AP(Approach) 단계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FF(Fact Finding)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신앙의 상태와 관심사를 살피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는 장기 전도(Long Term)와 즉각 전도(Immediate Term)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2주 동안에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배울 것입니다. 이번 전도 특강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토대로 캠퍼스나 일터에서 실천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현장 전도는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열정이 중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WeChat ID : df7135

바다 건너 전해진 사랑, WIN 러브박스





해외에서 살아가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필리핀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상자를 발릭바얀 박스(Balikbayan Box)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포 상자가 아니라, 가족과 고향을 향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리움을 담아 보내는 특별한 상징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따라, WIN-Seoul의 몇몇 성도들이 뜻을 모아 생활용품과 옷, 장난감, 책 등을 정성껏 담은 WIN 러브박스를 준비하여 필리핀의 WIN-Bicol, WIN-Pampanga, WIN-Angeles, WIN-Baguio, WIN-Infanta 교회들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WIN-Seoul이 직접 배송비를 감당하며 이 사역에 마음을 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WIN 러브박스 사역은, 단지 물건을 보내는 일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나눔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넘어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며 돕는 일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는 믿음의 교제요 공동체적 청지기 정신의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와 기쁜 얼굴들은 단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WIN 러브박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더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Facebook : Abel Raby

〈 영아부 〉 부장 : 박윤신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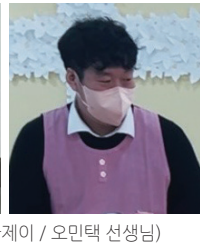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우리는 기쁨의 자녀예요(창21:6)	교사강습회 참여(문화교회 1.10 토), 1월 생일축하(최예서, 정윤성, 홍신희), 새친구 환영(최이언, 한제이), 반별 모임 및 사진 촬영
	18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창28:15)	신입교사 환영(오민택 청년), 광고천사 등장, 말씀집중주일, 월례회&기도회
	25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창45:5)	2월 말씀송 배우기
2	1	서로 사랑해요(행2:46)	말씀 집중 주일
	8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행4:24)	홍신희 가정 환송(사우디아라비아), 가정예배를 위한 말씀 기도카드&led 초 나눔.
	15	서로 도와요(행11:29-30)	설맞이 세배&윷놀이, 사순절 말씀달력 배부, 교사릴레이기도 주중 시작
	22	예수님을 자랑해요(행5:42)	사순절 1주, 자녀축복기도문 작성 및 부모님 소개의 시간, 3월 말씀송 배우기
3	1	기쁨을 주셨어요(요2:1~12)	사순절 2주, 반별 나눔
	8	제자로 불러주셨어요(마4:19)	사순절 3주, 말씀 놀이

/ 박윤신 부장



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홍신희)




새친구와 새로운 선생님을 환영해요(최서언, 한제이 / 오민택 선생님)



설맞이 세배 & 윷놀이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문 작성


영아부 가정이 함께하는 봉헌과 기도 (박수아 가정)


영아부 친구들도 서로 도와요(말씀 놀이)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짝꿍을 만드신 하나님(창2:23)	반별 사진촬영, 생일파티
	18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창9:16)	노아의 방주 만들기
	25	복을 주신 하나님(창12:2)	반별 말씀 암송
2	1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창50:20)	말씀송 배우기, 생일잔치
	8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출3:10)	파라슈트 활동
	15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출19:5)	민속놀이, 사순절 가정활동지 배부
	2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롬1:3~4)	반별 말씀 암송
3	1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마4:23)	말씀송 배우기, 생일잔치
	8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막6:41)	링 걸기 활동

/ 정윤정 부장



생일을 축하해요



쉿! 말씀 집중



노아의 방주 만들기



파라슈트 활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짝꿍을 만드신 하나님(창2:23)	1월 생일파티 /레크리에이션
	18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창9:16)	공과 활동
	25	복을 주신 하나님(창12:2)	말씀 암송 잔치
2	1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창50:20)	2월 생일파티 /공과활동
	8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출3:10)	공과 활동
	15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출19:5)	어른들께 세배/전통놀이
	2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로1:3-4)	가족 초청예배
3	1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4:23)	3월 생일 잔치 /공과 활동
	8	오병이어의 말씀(막6:41)	전체활동 오병이어 말씀뷔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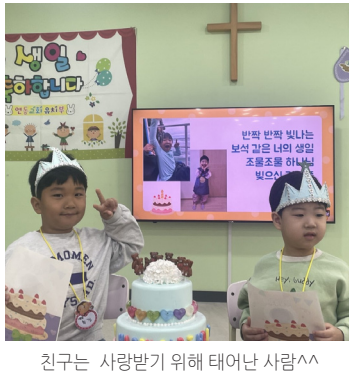
/ 최정미 교사



재미있는 공과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친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엄마 아빠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와 함께 드린 예배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 잘 양육하겠습니다!!

〈 유년부 〉 부장 : 이현승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창 2: 18)	반별 말씀 활동(공과)
	18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창 9: 16)	반별 말씀 활동(공과)
	25	복의 통로로 살아가요(창 12: 3하)	반별 말씀 활동(공과), 1월 생일파티, 유년부 찬양대 수련회(31일)
2	1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창 50: 2)	반별 말씀 활동(공과)
	8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출 3:12)	반별 말씀 활동(공과), 2월 생일파티, 교사 월례회
	15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출 19: 5-6)	설 특별활동
	22	예수님은 누구신가?(롬 1: 2-4)	반별 말씀 활동(공과), 새학기 자녀축복기도회(28일)
3	1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마 4:23)	반별 말씀 활동(공과), 3월 생일파티, 사순절 그리기 특별활동
	8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막 6:41)	반별 말씀 활동(공과), 3학년 1반 헌신예배

/ 성창원 교사



1월 생일파티



3월 생일파티



2월 생일파티



3학년1반 헌신예배

〈 초등부 〉 부장 : 김태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함께 살아가요! (창 2:18)	라포형성 프로그램, 교사헌신 오후예배
	18	무지개 언약은 영원해요!(창 9:16)	라포형성 프로그램
	25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되어요! (창 12:3하)	1-2월 생일자 파티, 파자마파티 라디오 사연지 작성
2	1	하나님의 손에서 작품이 되다!(창 50:20)	2026년 첫 공과활동, 칭찬 스티커 개시, 파자마 파티(2월 6,7일)
	8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출 3:12)	공과활동 , 파자마 파티 시상
	15	약속의 백성이 되었어요(출 19:5-6)	명절 특별활동: 반별 대항전 판 뒤집기 게임
	22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출 19:5-6)	공동체 활동: 반별 대항전 합심 운동회 새 학기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3	1	예수님이 하신 일!(마 4:23)	공과활동, 초등부편의점 오픈(칭찬 스티커)
	8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막 6:41)	공과활동

/ 전진석 교사



파자마 파티 단체사진


라포형성 프로그램(젠가탑 높이 쌓기)



1-2월 생일파티


파자마 파티 포토존



공동체 활동 합심 운동회


새 친구 박용준 어린이와 전도자 양지호 어린이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끝까지 지켜줄게”(창 9:11)	특별활동 : 떡볶이 만들기
	18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창 21:2)	특별활동 :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25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창 28:15)	특별활동 : 박성우 집사님과 다같이 레크리에이션
2	1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창 45:7)	특별활동 : 나는야 피구왕! 피구 대회 상반기 어와나 모집
	8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하나님이 준비하세요.”(출 3:10)	특별활동 : 내 마음대로 그림톡 만들기, 상반기 어와나 모집, 어와나 본부 BT(Basic Training) 교육 참가 (2/7)
	15	겨울 어린이부 (AWANA 방학) “하나님이 준비하세요.”(출 3:10)	특별활동 : 설 명절 윷놀이 대회 겨울 어린이부 출석 시상식, 어와나 반편성
	22	상반기 AWANA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딤후 2:15)	개회식 /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총 35명
3	1	상반기 AWANA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출 19:5~6)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8	상반기 AWANA “하나님이 함께하세요”(출 29:45)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 윤종훈 부장



어와나 게임 - 지그재그 달리기



두쫀쿠 만들기



오늘의 MVP들과 함께



다같이 두바이 쫀득 쿠키



상반기 어와나 개강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너 혼자 산다(창2:18)	교사 소개, 겨울수련회 (1월 30일-2월 1일) 신청 안내 반별 사진 촬영-1학년
	18	무지개 도파민(창9:11-13)	반별 사진 촬영-1, 2, 3 학년 겨울수련회(1월 30일-2월 1일) 주제와 일정표 안내
	25	성경 속 불편한 진실(창12:1-2)	겨울수련회 안전교육, 반별 사진 촬영
2	1	원상복귀(눅17:20-21)	겨울수련회 닫는 예배 후 반별 점심(햄버거), 겨울수련회 후기 설문조사
	8	Yes, I Can(출3:1-5)	수련회 스케치 영상 시청, 박종진 찬양팀 선생님 마지막 찬양인도 찬양대 / 찬양팀 모집
	15	난 니가 예수 전했으면 좋겠어(출19:5-6)	2월 생일 맞은 학생들 축하, 남윤태 선생님 찬양 인도 설 명절 단체 레크리에이션 -신경호 선생님 인도
	22	두.존.구(롬1:2-4)	사순절 기간 동안 반별 프로그램 안내-전도사님, 기독교 성 가치관 교육-박미경 선생님, 찬양팀 엔지니어 학생 모집
3	1	가.전.고(마4:23-25)	사순절 기간 경건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매일 묵상카드를 통해 말씀, 기도, 실천, 암송, 세례 및 입교자 교육 모집
	8	제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마 6:35-44)	사순절 프로그램 반별 점수 공개, 반별 이름 정하기, 세례 및 입교자 교육 모집

/ 박성윤 부감







설 명절 단체 레크리에이션







겨울 수련회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	11	I am you, when I am I(창2:18~24)	1월 생일자 축하
	18	비만 오면 심쿵하는 너에게(창9:8~17)	임원단 리더십트레이닝 및 수련회 준비 15(목) 수련회를 위한 합심기도(매일 22시)
	25	하나님의 열심(창12:1~3)	수련회를 위한 합심기도(매일 22시)
2	1	하늘을 보는 눈, 땅을 딛는 발(행1:6~11)	수련회를 위한 합심기도(매일 22시) 1/30~2/1 겨울수련회(주제 : SPARK)
	8	사람 잘못 보셨어요(출3:1~12)	세계선교주일 특별활동 및 기도회
	15	너 혹시…뭐 돼?(출19:1~6)	설 명절 특별활동
	22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롬1:2~4)	사순절 40-day 갓생챌린지 1~4일차(성경 인물과 대화하기)
3	1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4:23~25)	3.1절 특별활동(방탈출퀴즈), 2/28~3/1 찬양팀 수련회 사순절 40-day 갓생챌린지 5~10일차(성경 인물과 대화하기)
	8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이미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만(막6:30~44)	사순절 40-day 갓생챌린지 11~16일차 (성경 인물과 대화하기)

/ 이승원 부감



찬양팀 수련회



겨울수련회 학생회 프로그램



겨울수련회 집회



세계선교주일 활동



겨울수련회 단체사진

겨울의 눈도 녹인 중고등부의 뜨거운 겨울수련회

2월 27일(금) ~ 3월 1일(주일),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동교회 강화수양관에서 2박 3일간 겨울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주님을 찾는 귀한 영혼들의 수련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 남다은 기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중등부





중등부는 누가복음 17장 20절-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썰매장에서 손에 손잡고 뛰어 놀고, 학생 임원들이 준비한 게임으로 재료를 획득해 조원들과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천로역정 방탈출 게임을 통해 크리스천의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간접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SPARK: 고등부





고등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임원 프로그램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선택 특강으로 진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조원들과 만든 요리에 스토리를 붙여 대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호도별 토크모임, 코너학습, 경찰과 도둑 등을 통해 대화로, 몸으로 주님,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ove letter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우체통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우정을 돈독히 하기도 했습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영접하다: 연합 셀러브레이션




새학기의 고민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은 둘째날 집회 후, 중고등부는 수양관 신예배당에 모여 찬양 셀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신나는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고, 찬양에 맞춰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준 신앙의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9기 연동 숲속 아기학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습3:17)

교육 대상 생후 18개월 ~ 40개월 어린이와 보호자 1인

교육 기간 26년 3월 21일 (토) ~ 4월 18일 (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신앙 교육 내용

창조	사랑	예수님	하나님 닮은 연동아이

연동 숲속 아기학교는 매 학기별 '다른 주제'로 신앙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의 4가지 주제는 매 학기별 신앙 교육 주제이며,
이번 제9기 아기학교 주제는 '창조' 입니다.
연동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만나요 ☺

문의: 박윤신 숲장 (010-2256-5447)

왓두유뽀리빙

우리 서로 인사해요~

헬로 패스터 아벨! 꼬메스따?

Hello. Pastor Abel. Kumusta?

연동교회에서 필리핀예배공동체 사역을 이끄시는
아벨 목사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볼까요?^^

Isa. 아벨 목사님의 고향은 어떤 곳이며, 필리핀 고향 소개해주세요.

고향은 필리핀 남부의 케이존 주(Quezon Province)로, 마닐라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해안 마을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곳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섬김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Dalawa. 아벨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필리핀 음식은 무엇인가요?

한국 음식 가운데서는 비빔밥, 김밥, 김치, 삼계탕, 감자탕 등을 참 좋아해요~.
필리핀 음식으로는 새콤한 국물요리인 시니강(sinigang), 스프링롤, 비콜 익스프레스, 여러 채소를 넣어 만든 피낙벳(pinakbet), 그리고 필리핀의 대표적인 빙수 디저트인 할로할로(halo-halo)를 좋아합니다.^^
음식은 단지 먹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과 문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Tatlo.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와 연동교회와 함께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2년,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의 6주년 기념예배에 4주 동안 설교를 부탁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필리핀 마닐라에서 10년째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었고, 당시 한국 교회는 선교사 비자를 받는 어려움 때문에 정기적으로 목회할 사역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헌신된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후 당시 지역 디렉터였던 Butch Yu 목사님의 권유로 서류를 준비해 한국대사관에 제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연동교회와의 협력이 더욱 깊어졌고, 다문화 공동체도 세워지게 되었어요. 연동교회와의 동역은 어느덧 1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Apat. 아벨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예배당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1994년부터 고향인 케이존 지역(Quezon town)에 기도와 묵상을 위한 공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 와서 여러 기도원을 방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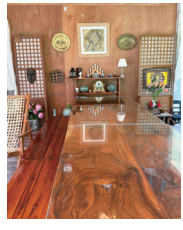
되었고, 그 비전이 더욱 분명해졌답니다. 그래서 2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조금씩 가꾸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기도의 집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아직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답니다.

Lima. 필리핀에 예배당이 세워진다면 그 공간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바라시나요?

지난 3년 동안 그곳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수련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어요.

여름마다 청소년과 어린이 캠프도 열리고 있고, 이제는 여러 교회가 소그룹 수련회를 위해 찾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며, 다시 믿음의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he prayer garden

Anim. 아벨 목사님이 꿈꾸는 앞으로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조금씩 세워온 기도동산을 더 잘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에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돕고 싶어요. 또한 상담과 성경공부, 지역사회 섬김에도 힘쓰며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을 살고 싶답니다.

Pito. 목사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섬김" "Serving"

1978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 삶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 걷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쓰임 받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제게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Pastor Abel)와 함께한 "왓두유뽀리빙" 이었습니다.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한국어 강사 강혜원 청년

| 나의 한국어 강사 도전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매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대학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과 문화의 차이를 마주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인디애나는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 번 깨어지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저의 역할은 그들의 꿈과 도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한마디씩 말하던 학생들이 점점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친구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한국어로 서로 이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때면 큰 감사가 됩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더 큰 기쁨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대학 시절 함께 전공했던 시각디자인 분야를 살려 한국어를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와 교육의 달란트를 통해 이 시대에서 사라진 소통을 회복하고,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을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어 교육은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하더라도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가르치는 내용이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많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의 모습이 곧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언어와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비전은 큰 힘이 있으니,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꿈을 펼쳐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혜원(☎010-2189-3343)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연동교회는 오랜 검증 끝에 찾은 안식처입니다"



김승희 성도(아일구역)

교회 문 앞에서 1년을 망설였습니다. 상처 입은 신앙의 역사, 정치화된 강단, 뉴라이트 설교들과 차례로 마주하며 그녀는 기준을 세우고 교회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여름, 김승희 성도는 연동교회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하루를 걷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검증'의 1년, 드디어 찾은 평안의 안식

김승희 성도는 모태신앙자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늦게나마 집사님이 되셨고, 세 자매 모두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의 뿌리는 깊었지만 상처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전주에서 자라던 청소년 시절, 어머니가 개척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으셨을 때 본교회 교인들로부터 오해와 손가락질 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서울에서 다닌 대형교회는 정치화되고 세습을 강행했으며, 이사 후 찾아간 교회의 첫 설교에서는 "일제시대는 축복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굳이 교회는 안 나가도 되지 않나" 생각하며 지내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기준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 가까운 전통 있는 교회, 적정한 규모의 교회, 정치적 편향의 설교를 하는지 확인할 것.' 매주 한 곳씩 순례하다 우연히 연동교회에 이르렀고, "딱딱하겠지" 했던 예상과 달리 목사님 설교가 편안히 귀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선거철까지 1년을 지켜봤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없었고, 세습 없는 역사 깊은 교회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었습니다. 2024년 여름, 드디어 연동교인이 되었습니다.

마비된 일상을 깨운 기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 마비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도 같은 병을 앓으셨기에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병력을 알고 있던 그녀는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했고, 그 절망의 순간 평

소라면 상상도 못 했을 용기를 냈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을 붙들고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위임목사님께 기도 받은 며칠 뒤, 자고 있는데 입 주변이 움직이는 생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달려가 거울을 보니 나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치유되었다는 강한 영적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이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한 치유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삶의 구체적인 고통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신앙 너머의 삶 -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그녀는 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국, 케이블 종편, 해외 드라마 수입사 등 미디어 현장을 거친 끝에 지금의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시청자 권리보호와 미디어 변화 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유튜브로 알리는 일을 거의 혼자서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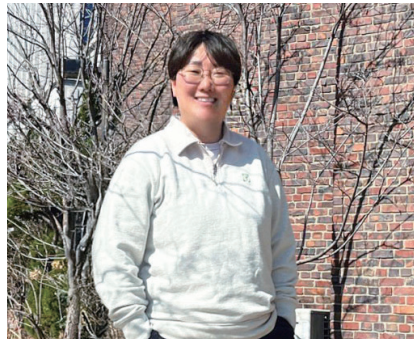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팩트체크도 해야 하고, 저작권 문제도 늘 신경 써야 해요. 오늘은 종로에 나온 김에 광화문 정부청사와 감사원 외관을 직접 찍어 아카이빙하려고 해요." 카드뉴스 한 장에 쓸 이미지를 위해 발 품을 파는 일상은 창작의 수고로움 그 자체입니다. 1년마다 반복되는 재계약의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오늘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현재 그녀는 자신의 신앙에 부족함이 많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부채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꾸는 신앙은 거창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경건함에 갇혀 세상을 죄악시하는 신앙보다는,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과 조화를 이루고 싶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님을 생각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스며 있는, 여유 있으면서도 깊은 신앙 말이죠. 율법적인 강박에서 벗어나 주님과 친구처럼 걷는 삶을 원합니다."

불안정한 앞날 속에서도 그녀는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합니다. 건강과 일상의 안정, 일터에서의 성실함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연동교회가 담장 너머 이웃에게도 열려 있는 방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앞에 연동역사관과 더게일홀 카페를 안내하는 표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야 느낄 수 있는 연동교회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긴 순례 끝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사람이, 이제는 그 문이 더 넓게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담긴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따뜻한 애정임을 느꼈습니다. 율법의 무게 대신 자유함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김승희 성도의 걸음을 함께 응원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의 자리



장학위원회(위원장 강철민 장로)는 2월 22일(주일) 3부 예배 후 '2026년 연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올해 장학생은 대학원생 7명, 대학생 21명 등 총 32명이며, 장학금은 2월 23일(월)에 지급되었다. 이번 수여식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 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장학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린이부 조예은 전도사(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는 신학 공부가 "은혜이자 책임"이라며 장학금을 사역 격려의 표징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목으로 섬기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HI청년공동체 김우진 청년은 연동교회 모태신앙과 고등부 기도·수련회 시간이 큰 힘이 되었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나누었다.

장학위원회는 매년 신앙과 학업에 성실한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며, 교회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도한다. 앞으로도 모든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임재철 기자





조예은 전도사
(어린이부)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며 어린이부(어와나)를 섬기는 조예은 전도사입니다. 귀한 장학금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신학대학원 입학하며 신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격려하시는 은혜로, 다음 세대 사명을 분명히 하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교목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아이들에게 쉼터가 되어 기도의 불씨를 지키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학업과 사역에 성실히 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우진 성도
(HI 청년공동체)

안녕하세요. 2026년 장학금 받은 HI청년공동체 김우진입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연동교회에서 자라며 고등학교 시절 주님께 의지한 시간이 신앙 성장을 도왔습니다. 고등부 공과와 수련회는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나누는 삶을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와 사회·학업 현장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공부로 주님 사랑을 전하는 법을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랑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연동 장학생 명단〉

NO	장학기금명	성명	학교	금액(원)
1	권사회	조준용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2	권사회	장판규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3	권사회	조창우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4	김영순이선인	민지수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5	김영순이선인	조예은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6	운수정희 연동	김옥자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000
7	하양 선유 소천	강신홍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	2,000,000
8	최우암 동해	김연후	수원과학대학교 스포츠건강지도과	2,000,000
9	세중 방정현	김예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항공서비스과	2,000,000
10	정은옥 그루터기	김우진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2,000,000
11	원정 윤영	김태양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2,000,000
12	유민화 건실	김한결(남)	단국대학교 실용음악과	2,000,000
13	박순자 운암순원	김한결(여)	연세대학교 자율융합계열학부	2,000,000
14	김성태윤선향	박지오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대학원)	2,000,000
15	문정	박찬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000,000
16	지소라 김병웅박은화	박하영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000,000
17	신우 모과나무	박혜진	서경대학교 비주얼디자인과	2,000,000
18	안수집사회 연동	양리펑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신학과	2,000,000
19	연동	육기돈	인하대학교 항공우주학과	2,000,000
20	연동	윤재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2,000,000
21	연동	윤주원	서울과학기술대학 안전공학과	2,000,000
22	연동	이경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2,000,000
23	연동	이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2,000,000
24	연동	이한서	신한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2,000,000
25	연동	전종민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000,000
26	연동	최보배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000,000
27	연동	허지혜	경인여자대학교 영상방송학과	2,000,000
28	연동	황보예원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000
1	희연 장학금	김유나	신장고등학교	800,000
2		최가은	성신여자고등학교	800,000
1	이지연 장학금	노승갑	장로회신학대학원	3,415,000
2		형옥임	장로회신학대학원	3,553,000

AL
Ministry와
함께하는

사순절
촉각십자가
전시회

손끝으로 만나는
주님의 고난



전시일정
2026. 2. 24(화) - 4. 5(주일)

개회예배
2. 24(화) 오전 10시

장소
연동교회 더게일홀

주최 | 연동교회, AL미니스트리, 함께하는 십자가 작가회, 마음풀림
주관 | 연동교회, AL미니스트리

위임목사와 함께한 장로 성경공부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야베스의 방에서 김주용 위임목사와 함께 장로 성경공부가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다. 1월 10일부터 7주 동안은 매주 정해진 도서 한 권씩을 읽고 30분 발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8주차인 3월 7일은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의 특강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로 마무리되었다.

특강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오픈 강의로 확대되어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열렸다. 지용근 대표는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개신교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원인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며 연동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날 오픈강의는 질의응답까지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당회 서기인 방영민 장로는 8주 과정을 모두 마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요즘 모든 교회가 젊은 성도의 이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동교회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교회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8권의 책을 장로님들과 함께 읽고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8주간 함께 책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한 그 시간이, 연동교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현미 편집장

날짜	도서(저자, 출판사)	발표자	토론자
1/10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레베카 맥클러플린, 죠이북스)	위임목사	이만희, 박종화, 김진양, 심현숙, 박재천, 박종서
1/17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앤디 크라우치, IVP)	위임목사	김형기, 이규성, 강철민, 최은주, 김웅종, 류관식
1/24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고재백 외, 새물결플러스)	위임목사	장동철, 강석주, 최현수, 강사겸, 박은화
1/31	5무 교회가 온다(황인권, IKP)	위임목사	김찬진, 김진호, 이정민, 김성영, 여명선
2/7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이다니엘, 샘솟는 기쁨)	이만희 장로	류관식, 박은화, 방영민, 박재천, 김성영, 최은주, 심현숙, 최현수, 김이순, 김진호, 이규성, 정금실, 장동철
2/21	혁신하는 교회(스콧 코모드, 두란노)	김진양 장로	박종서, 김웅종, 권영석, 여명선, 강사겸, 이호진, 이정민, 강철민, 강석주, 박종화, 김찬진, 김형기
2/28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XHA 라이트, IVP)	위임목사	정금실, 김이순, 이호진, 권영석, 방영민
3/7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목회데이터연구소, 규장)	지용근 대표 (특강)	모든 장로(전교인 대상 강의 후 토론 진행)

여전도회 헌신예배





1월 18일(주일)은 여전도회주일로 여전도회 연합사업을 위해 1부예배는 최계숙 권사(제3여 회장), 2부예배는 박영란 권사(제2여 회장)가 특별봉헌 기도를 했다. 오후 여전도회 헌신예배는 김은희3 집사(제4여 회장)의 인도로 김경은 권사(제1여 회장)가 기도를, 임경선 집사(제4여 서기)가 성경봉독(고린도후서 13:11)을 한 후 여전도회찬양대가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했다. 김경숙 목사가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후 박수경 집사(제4여 부회장)가 여전도회 회의록 및 사업보고를 했다. 김주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야베스방에서 김경숙 목사, 김주용 목사, 여전도회 임원들과 다과의 시간을 가졌다./ 이지원 기자

시간의 발자취, 이 달에 보는 연동 역사 이야기



1894년 설립된 연동교회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교육,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고 천민 출신 고찬익을 장로로 세우는 등 신분제 타파에 앞장섰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의 불의에 맞섰습니다. 교회학교와 교육 활동을 통한 민족 계몽, 여성운동을 통한 민주화 참여까지, 연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속에서 선포하는 예언자적 교회로서 한국 사회의 변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연동교회 역사관은 이러한 역사를 교인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공개하고 있으며, 역사위원회는 매달 주제별 유물을 선정해 더게일홀에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1919년 3.1운동과 관련한 연동교회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역사관 자료들의 더게일홀 전시가 주님께서 연동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정민 장로(역사위원회 위원장)

말씀으로 깨어나고 웃음으로 하나 된 '온제직간친회'



1월 22일(목), 올해 새롭게 세워진 집사들과 제직원, 그리고 은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제직간친회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 5시 30분 접수를 시작으로 오병이어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 뒤, 6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예배와 제직부서 소개 및 부서별 모임이 이어졌고, 이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전체 친교행사가 진행되었다.

영성훈련부 주관으로 드린 예배는 부장 최은주 장로의 인도로 차장 윤종훈 안수집사의 기도와 차장 김예주 권사의 성경봉독(딤전 4:7)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의 "구별된 제직의 삶" 말씀으로 은혜를 더했다. 이어 신용식 안수집사(제직훈련팀 팀장)의 신임 집사 소개와 인사가 있었고, 각 부서별로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베들레헴예배실로 옮겨 친교부(부장 김이순 장로) 주관 아래 김형기 장로(친교부 차장)의 사회로 전체 친교행사가 이어졌다. 찬양으로 분위기를 열고, 곳곳에서 박장대소기 터져 나오는 가운데 개인별·부서별로 넌센스 퀴즈와 게임이 펼쳐졌다. 유쾌하게 경쟁하며 마음껏 웃고 즐긴 이날의 만남은, 새영으로 새해를 함께 시작하는 제직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결속되는 은혜롭고도 따뜻한 시간이었다./ 박현미 편집장

[후원자 명단](성별·직분 생략, 가나다순)

봉헌금: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제1~3남선교회, 제1~4여전도회, 강철민, 김병웅, 김선희2, 김웅종, 김이순, 김정숙(집사), 김진호1, 김학수, 박은화, 박종서, 방영민, 이정민, 최은주, 황석상

봉헌물: 권영석, 김성동, 김주일, 김찬진, 김형기, 류관식, 이호진, 최현수

자매교회 순회예배-주암교회



2월 1일(주일) 오후예배는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가 주관한 자매교회 순회예배로 드렸다. 이호진 장로의 인도로 시작된 순회예배는 윤영란 권사의 기도, 허선미 권사의 성경봉독, 여전도회찬양대의 '성령이 오셨네' 찬송이 있었다. 이어서 주암교회(경기도 여주시 소재) 이주흥 목사가 '사랑의 회복'(요 21:1-14)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은 찾아가는 것, 말을 거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랑의 회복에 대해 설교했다. 설교 후 주암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양진실 기자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



2월 8일(주) 오후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김이순 장로) 헌신예배로 드렸다. 김이순 장로의 인도로 정금실 장로(부위원장)의 기도, 김선일 집사(부회계)의 성경봉독(눅15:1-2) 후 이진우 목사가 '예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종훈 안수집사(총무)의 사업보고에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 특송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월 1일과 8일 주일 오전에는 교회 마당에서 전교인 차대접을 했다. / 이지원 기자

종로시찰 연합일일부흥회





1월 21일(수) 오후 7시 2026 종로시찰 연합 일일부흥회가 예능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예능교회 예능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황영태 목사(종로시찰장/안동교회)의 예배 인도, 손재흥 목사(예능교회)의 기도, 성경봉독(출 13:20-21)은 김주용 위임목사가 맡았다. 예능교회 연합찬양대 찬양 후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원로)의 "광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선포가 있었다. 봉헌시간에는 예능교회 남성3중창 "주의 은혜라"를 찬양했고, 봉헌기도는 이윤표 장로(종로시찰 회계/새문안교회), 나라를 위한 합심기도는 이광재 목사(동숭교회),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는 서진석 목사(승동교회)가 맡았다.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의 축도 후 예배를 마쳤다. 이날 봉헌금은 밥생명공동체에 전액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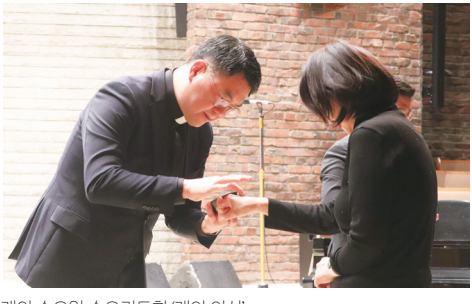
종로시찰 소속 10개 교회는 동숭교회, 명륜중앙교회, 새문안교회, 승동교회, 안동교회, 연지교회, 영락농인교회, 예능교회, 주현교회이다. / 김종은 기자

연동신협 제48차 정기총회



2월 8일(주일) 오후 4시10분 본당에서 연동신협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김주용 위임목사 개회 기도 및 박행본 이사장 인사말씀이 있었고, 제2부 본 회의에서는 2025년도 결산 결과보고, 예산, 사업계획 등으로 조합원의 결의를 받았으며 출자배당률은 3.9%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통과하였다. 당 조합의 경영실태평가는 2025년도 매년 종합등급 1등급, 순자본 비율은 전국 862개 신협 중 18위로 연속하여 우수 조합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새로 임원 선임이 있었다. 그동안 수고한 박행본 이사장에 이어 김대진 이사장, 권영석 부이사장, 김성영, 김인혜 이사, 최영익, 이수진 감사(이하 비상임), 정영희 상임이사가 4년 임기로 선임되었다. 폐회 후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조합원을 위하여 이동식 TV등 200여 개의 상품을 준비하여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가실 때는 조합원 기념품으로 구포국수와 빵을 나누어 드렸다. 이번 48차 총회는 재적 조합원 2,621명 중 참석 268명, 위임 70명, 총338명이 참석하였다. / 정영희 권사(연동신협 상임이사)

재의 수요일 수요기도회



재의 수요일 수요기도회 '재의 의식'



재의 수요일 침묵기도 시간

사순절은 2월 18일 '재의 수요일'로 시작됐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교인들이 참석했다. 수요기도회는 다올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시편 51장 17-19절의 성경봉독과 여전도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 후 목사님이 수요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손등에 십자가를 그리는 '재의 의식'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주용 위임목사가 설교하였고 회개와 결단을 위해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회 시간에 이예일 성도(게일찬양대)가 특송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했는데, 사순절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4월 5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와 결단이 있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한다. / 양진실 기자

'게일찬양대와 함께하는 수요찬양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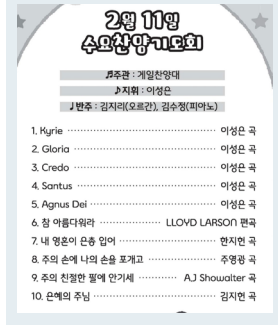


2월 11일(수) 수요기도회는 '게일찬양대(대장 장선업 안수집사)와 함께하는 수요찬양기도회'로 진행되었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찬양할 수 있으니'(시42:5) 말씀 뒤에 지휘 이성은 목사, 오르간 김지리 권사, 피아노 김수정 집사, 플룻 김수연1권사와 찬양대원들은 총 10곡을 연주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지휘자인 이성은 목사가 직접 작곡한 '주님께 드리는 작은 기쁨의 고백' 칸타타 5곡(Kyrie · Gloria · Credo · Sanctus · Agnus Dei)이었다. 미사 통상문의 다섯 악장으로 구성된 이 칸타타는 이날 회중 앞에 처음 공연된 초연작이었다.

칸타타에 이어 '참 아름다워라(Lloyd Larson 편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한지헌 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주영광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A.J. Showalter 곡)', '은혜의 주님(김지헌 곡)' 5곡이 이어졌다. 합창 중간중간 회중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의 은혜를 한자리에서 다함께 나눴다.

본당을 가득 채운 찬양 속에서 수요기도회는 예배와 음악과 회중이 하나로 어우러진 감사의 뜨거운 시간이 되었다. / 박현미 편집장



세계선교위원회 소식



3월 4일(토)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김이순 장로)는 드보라의 방에서 2026년도 원 포인트 프로젝트 심사를 했다. 원 포인트 프로젝트란 여러 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선교사역지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담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교지로부터 사업공모를 진행하여 선정된 지역에 두텁게 일시 후원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금번 사업 공모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개 선교지에서 응모하여 이날 위임목사를 모시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1) 코스타리카/금상호 선교사 : 목회자 및 리더 성경공부 및 지도자 훈련 사역 (2) 콜롬비아/박재현 선교사 : 고아원 '꿈들의 집' 건축 내부 공사 (3) 페루/안길태 선교사 : "한 학교, 한 세대, 3년의 말씀" (4) 멕시코/오베드로 선교사 : 유카탄 방과후 학교 교육선교 (5) 쿠바/이범찬 선교사 : 작은 교회 기본 장비 구축 사업

이 중 심사를 통해 콜롬비아/박재현 선교사, 코스타리카/금상호 선교사, 페루/안길태 선교사, 이 세 지역이 선정되었고 세 지역에 사업 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4일(토) 다니엘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동북아 두부공장 사업에 대한 후원을 의결하였으며,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대한 일회성 지원 역시 결정되었다.

/ 윤종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영화 <신의 악단>과 함께 한 2월 교구 전체 모임



2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2월 교구 전체 모임이 대학로 CGV에서 있었다. 장소를 극장으로 정한 이유는 예배 후 영화 <신의 악단>을 다같이 관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각 교구별로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160여 석의 좌석은 하나둘씩 채워졌고 예배 시작 전에는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찼다. 예배는 찬송과 기도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찬양할 수 있으면 충분해(시131:1-3)'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은 후 광고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영화 관람을 하였다. 귀에 익숙한 찬양과 함께 흘러가는 이야기 가운데 뜨거워져 눈물을 닦아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모두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각 교구별로 모여 점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박윤신 기자

구역지도자 헌신예배



2월 22일(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지도자 헌신예배로 드렸다. 심현숙 장로(목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하놀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최경희 권사(목양위원회 서기)의 기도, 양윤정 집사(목양위원회 부서기)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말씀의 리더십(느 8:1-12)'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은 뒤 모든 구역지도자가 함께 <구역지도자 헌신 서약>을 하였다. 김영애 집사(목양위원회 부회계)가 앞에 나와 대표로 섰고 각 구역지도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각 구역지도자의 헌신 서약은 온라인을 통해 미리 서명을 받아두었다.) 소식, 알림 후 '보라 새일을' 찬양을 한 뒤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기자

새학기 자녀축복기도회





2월 28일(토) 예비일 새벽기도회는 새학기 자녀축복기도회로 드려졌다. 하놀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장선업 안수집사의 기도, 역대하 7장 14절의 성경봉독 후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들의 특송과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다.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은 후에 주일예배와 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회를 마쳤다.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학생과 부모가 작성한 기도제목을 놓고 김주용 위임목사가 각 가정별로 안수하며 축복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를 마친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병이어의 집으로 가서 청소년 주일학교 본부에서 마련한 조식뷔페를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연동교회 모든 청소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한다. / 양진실 기자

2025년 결산 감사 실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장로)는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하우스에서 2025년 결산 감사를 실시하였다. 회계감사는 봉헌으로 이루어진 교회 예산을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협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각 부서 회계는 2025년 집행한 예산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받은 후, 관련된 회계장부, 통장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감사를 받았다. 부서의 편의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출된 자료를 감사위원이 검토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고현수 기자

100년의 기억, 신앙의 길을 돌아보다

3.1절 기념 김형석 교수 특별 신앙강연회





3월 1일 주일 오후 3시, 3.1절을 기념하여 뜻깊은 특별 신앙강연회가 열렸다. 강연자는 한국 기독교 지성의 상징,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였다. 107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한 그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직접 겪은 대한민국과 기독교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3.1운동을 거치며 우리 민족은 세 가지 중요한 가치관을 품게 되었다. 첫째는 개인보다 '나라가 먼저'라는 애국심이었고, 둘째는 문맹을 벗어나 '배워야 산다'는 전국민적인 교육 운동이었다. 마지막 셋째는 좁은 세상을 넘어 넓은 세계를 보게 하며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준 기독교의 역할이었다.

어릴 적 잔병치레가 많았던 14살 소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을 서원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아픔도 겪었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철학자의 꿈을 키웠다. 특히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강연을 듣고 "한국의 작은 정신적 지도자라도 되라"는 부름을 가슴에 새겼다. 해방 이후에는 자유를 빼앗는 공산 치하의 실체를 목격하고 목숨 걸고 월남하여, '교육계에 몸담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평생을 헌신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가 단순한 수양이 아니라 역사를 바꿔 나가는 '역사 종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 국가나 경제 중심 사회를 넘어, 정신적 가치가 이끌어가는 질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기독교인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역설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돕는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당부하며, 3.1운동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1.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것
2. 양심의 가치인 자유를 존중할 것
3. 십자가의 약속인 사랑의 왕국을 세울 것

끝으로 "역사의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손을 대신해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107세 스승의 불타는 애국심과 신앙은 질서 있고 사랑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우리 연못골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과 과제를 남겼다. / 고현수 기자

출근길 직장인 섬김 및 새학기 응원 전도활동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 직장인예배팀(팀장 이규진 안수집사)과 청소년주일학교(교장 여명선 장로) 어린이전도단(단장 양진실 집사)이 함께 3월 3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회 앞에서 커피와 붕어빵, 군고구마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섬기고, 새학기를 맞은 청소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하며 응원했다. 전도활동팀(팀장 윤영란 권사)과 함께 전도폭발 전도지(휴대용휴지)로 전도와 함께 맛있는 간식을 나눠 드리니, 직장동료를 챙기는 분도 있었고, 차로 이동하다가도 멈춰 간식을 받아가시는 분도 있을 만큼 호응이 대단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걱정도 있었지만, 준비하는 시간부터는 비가 그쳐 간식 나눔에 지장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 청소년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교사와 전도사들은 효제초등학교,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에서 나눔과 전도활동을 했다. / 김종은 기자









남선교회 헌신예배



3월 8일(주일)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제1남선교회 회장 박재천 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해 찬송가 449장(예수 따라가며)을 부른 뒤 안수집사회 회장 김성동 안수집사의 기도와 제4남선교회 회장 김선일 집사의 말씀 봉독(이사야 6:8)이 있었다. 이건희 목사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의 핵심은 '순종'이며, 이는 특정 직분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사명이며, 우리는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후 남선교회 회원 일동의 특송이 있었다. / 송재호 기자

제직회 회의안 및 주보 QR 시행



3월 1일(주일) 제직회부터 회의안은 인쇄부수를 줄이고, QR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제직회 전 화면에 QR을 띄우고, 사무처 옆 본당 입구에도 QR을 비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의안 인쇄는 계속 줄여갈 예정이다.

또한 사순절 탄소금식 발자국 동참의 일환으로 자원 순환을 위해 3월 8일은 평상시 주보 부수의 절반인 600부 인쇄하였고, 15일은 인쇄를 맡기지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4면(A4 양면)으로 400부만 인쇄했다. 지면은 주일예배(1,2,3,4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순서, 전체광고, 주일설교노트만으로 구성했으며, 봉헌자명단(봉헌통계)은 사무처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성경통신강좌는 휴강했다. 모자란 주보는 예배당 의자에 QR을 붙여 주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종은 기자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성지순례

연동신협 조합원교육

- 장소 :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성지순례
- 일자 : 4월 7일 ~ 4월 10일(3박4일)
- 인원 : 30명(선착순)
- 신청 및 문의 : 연동신협(02-762-1907)

01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바람의 교회

02



윤동주, 정지용 시비의
도시샤 대학교

03



윌리엄 스크랜턴의
고베 외국인 묘지

함께 웃고 함께 자라는 5교구 첫 '씽씽모임'





3월 15일(주일) 오후 1시반 5교구는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에서 은혜와 즐거움으로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5교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삶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모임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올해 새롭게 조성된 5교구는 총 12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첫째자녀 나이별로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구역(비전1-고3, 비전2-고1,2, 비전3-중2,3, 비전4-중1)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드림구역(드림1-초6, 드림2-초3,4, 드림3-초 1,2,3)은 초등학생들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해피구역(해피1-유치, 해피2-유아, 해피3-영아)은 영아와 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가정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특히, 5교구 핫스팟인 신혼부부 구역과 미혼 청년과 싱글들이 함께하는 아일구역까지 더해져,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은 리더 중심으로 진행되며, 5교구 전체모임은 매월 셋째 주일 오후 1시반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에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나눔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5교구 씽씽모임이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따뜻한 가정 중심 공동체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박동진 기자



HI청년공동체 여름 해외단기선교

주제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벧전 1:3)
장소	태국(서경석 선교사) & 필리핀(이용돌 선교사)
일정	태국: 6월 28일~7월 4일(6박 7일) 필리핀: 6월 29일~7월 9일(10박 11일)
사역	어린이/청소년사역, 찬양/문화사역, 노방전도, 봉사, 방문사역 등
문의	박주안 목사(010-3447-3483) 조민경 선교 팀장(010-5738-4948)

유아세례 1월 25일 주일 2부 예배







이은율 (남, 2017년 03월 12일생)

이택림 성도, 유은영 성도 아들/ 드림 3구역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신 선물, 은율아~♡
너를 통해 엄마 아빠는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단다.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유아세례를 통해 주님 안에서 은율이가 새로 지으심을 받고, 너의 심령에 은혜가 있길 축복한다. 정말 사랑해 아들♡

2026년 연동요람 배부



2월 22일(주일) 사무처에서 '2026년 연동요람'을 배부했다. 자원절약과 함께 스마트성도앱 활용을 권장하며 300부만 인쇄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요람수령증을 작성한 교인들에게만 가정당 1권씩 배부했다. 교회조직 및 교회행사계획표, 예배담당자 등 종이요람에 싣던 내용을 스마트 성도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서 종이요람의 부수를 점차 줄이기로 했다. 과년도 요람 및 구역일람표는 사무처로 가져오면 일괄 폐기한다. 요람 표지는 김환 목사께서 디자인해 주셨다./ 김종은 기자

새가족 소개



손상돈(2교구 과천안산구역)



심승효(2교구 강서구역)



이동헌, 여지민(5교구 드림3구역)



한경순(3교구 안국평창구역)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1,2월 러브릿지"溫(ON)" - "새해에도 이어진 따뜻한 손길"

▶ 1~2월, 러브릿지온은 창신동 쪽방촌 어르신 80여 명을 찾아 새해 인사와 함께 보온용품, 영양 간식,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짧은 방문이지만 문 앞에서 나누는 안부 인사는 한 해를 시작하는 따뜻한 순간이 되었고, 2월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위생용품까지 함께 전달했습니다. 2026년에도 어르신 곁을 지키며, 다문화가정과 아동·청소년과의 만남도 소중히 이어가며,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을 만들겠습니다. 뜻을 모아 주신 후원자님들과 기도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2월 "제 4회 수료식 및 진급식"

▶ 제 4회 수료식 및 진급식 : 2월 20일(금)에는 연동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이후 네 번째로 맞이한 수료식 및 진급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웃고 놀며 성장해 온 아이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몸과 마음이 한층 자라난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 동안의 추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함께 보며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새로운 반으로 나아갈 설렘을 나누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걸어온 선생님들도 한자리에 모여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의 노력과 성장을 함께 기뻐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연동어린이집의 소중한 하루가 되었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1월, "겨울방학센터 맞춤데이"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1월 22일(목) 방학을 맞이하여 아동들과 함께 종로5호 거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맞춤데이를 진행하였다. 실내체육활동부터 슈링크만들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였다. 슈링크만들기는 아동들 모두 처음으로 접해 보는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슈링클스를 완성해 나갔다. 풍선공을 활용한 체육활동에서는 방학 중 야외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실내에서 해소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방학 동안 소중한 추억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협 현황

(1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23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 부채	합계
	6,061,795	39,912,104	2,599,865	970,318	49,544,082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3,164,427	732,200	86,980	15,560,475	49,544,082

(2월 28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22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 부채	합계
	5,878,320	40,155,319	2,437,871	2,307,327	50,778,837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3,350,132	1,445,744	89,235	15,893,726	50,778,837

목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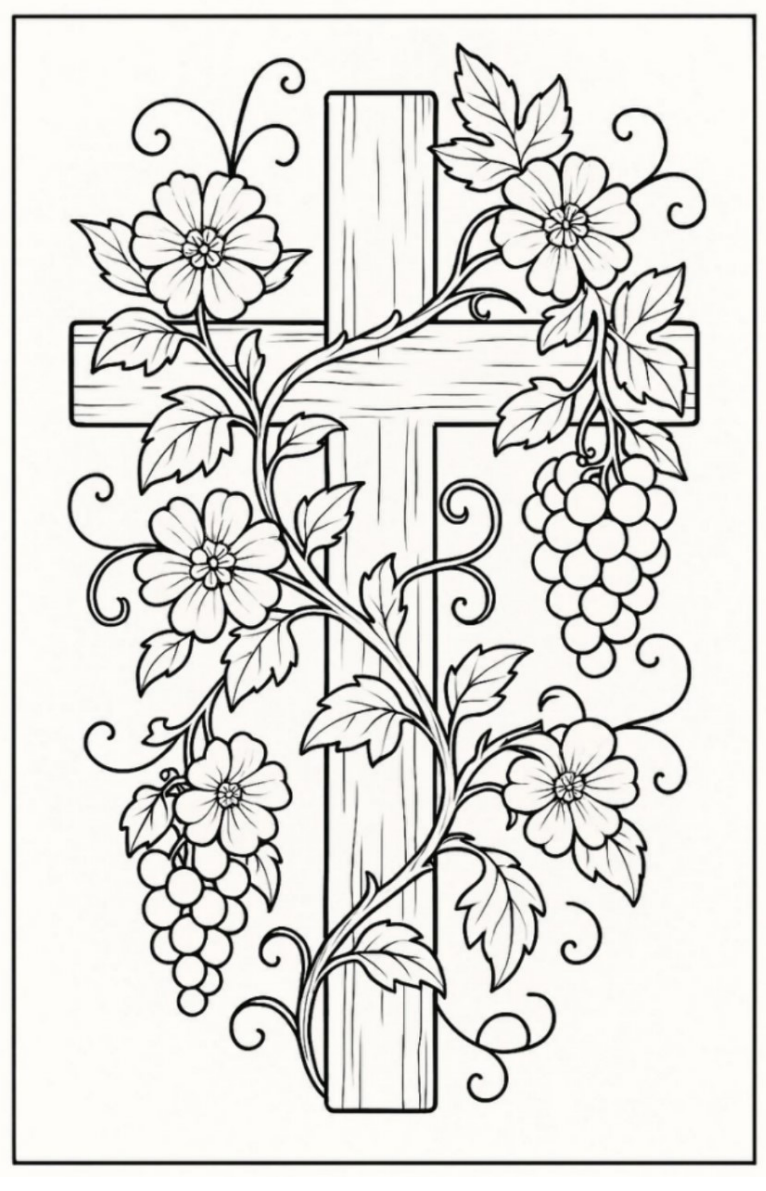
■결혼식

- 장진욱(장재용 성도, 황을자 집사 아들/성북1구역) 군과 그레타 넬슨(제러드 넬슨 성도, 케이티 넬슨 성도 딸) 양 -2월 7일(토) 오후 1시 본 교회당
- 김예은(김성동 안수집사, 강희숙 권사 딸/마포용산구역) 양과 김다언(김종빈 집사, 황정수 집사 아들) 군 - 2월 7일(토) 오후 2시 웨딩시그니처 합정 4층 아너스홀(지하철 2,6호선 합정역 ②번출구, ☎ 02-335-5400)

■장례식

- 이상준 집사(이건희 목사 부친, 이꽃아름 사모 시부) 별세, 1월 26일 백합의 뜰에 모심
- 강정숙 성도(민홍기 안수집사 모친, 김수연2 집사 시모, 민다은, 민다슬 성도 조모/의정부구역) 별세, 2월 3일 백합의 뜰에 모심
- 박순자 타교권사(신내구역) 별세, 2월 10일 백합의 뜰에 모심
- 김기우 목사(김용욱 성도 부친, 전해인 성도 시부/비전4구역) 별세, 2월 16일 전남 강진군 선영에 모심
- 최계자 명예권사(동작관악구역) 별세, 3월 2일 온양 선영에 모심
- 박길례 성도(조명숙 집사 모친/중구구역) 별세, 3월 4일 전북 공원묘원에 모심
- 이태한 권사(김진호 장로 모친, 이경희 권사 시모, 김은화, 김은지 성도 조모, 남상동 성도 처조모/의정부구역) 별세, 3월 6일 성주 선영에 모심

*2-3월호(625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5월 10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　　)

12-1월호 '연동컬러링'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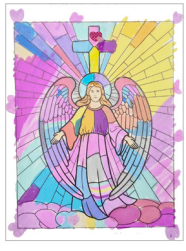
(5,000원 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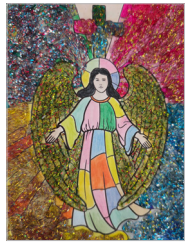
김혜자(백주년) - 2812



남상옥(효제) - 4380



이예은(유치부) - 4816



이주미(종로5가6가) - 5465

연 못 골 제 58권 625호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6년 3월 22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윤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남다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부서진 몸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둠을 지나, 침묵을 건너
죽음마저 이기고
이 작은 나에게
오십니다

2-3월호(625호)